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의 정체성 인식과 방문의향 분석연구*

- 서서울문화플라자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Identity Perception and Visit Intention in Everyday-Life-Oriented Cultural Complex: Focused on the Seo-Seoul Culture Plaza

곽 승 진 (Seung-Jin Kwak)** 장 인 호 (Inho Chang)***
노 영 희 (Younghee Noh)**** 강 봉 숙 (Bong-Suk Kang)*****

초 록

본 연구는 서서울문화플라자를 사례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시민의 정체성 인식과 방문의향을 분석하였다. 2025년 6~7월 온라인 설문(유효표본 2,348)을 활용해 필요성 인식, 정체성 유형, 복합시설·구성시설(도서관·생활체육·키즈카페)별 예상 방문 빈도, 공간·프로그램·편의시설·야외공간 수요, 이용 불편 요인을 기술통계와 항목 간 비교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필요성은 매우 높았으며 정체성은 생활문화·건강체육·가족체협의 3축으로 수렴하였다. 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이 핵심 앵커로 확인되었고, 연계 공간·프로그램의 정기 참여 의향도 높아 '정례 운영체계' 구축의 타당성이 강화되었다. 반면 정보·홍보 부족, 전문성·다양성 부족, 통합 이용의 어려움과 편의공간 부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합 안내·예약·동선 체계, 시설 간 교차 프로그램 정례화, 좌석·편의시설 확충과 혼잡관리, 안전·위생 기반 키즈 운영, 야외 정원형 문화광장 운영을 결합한 통합 운영전략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citizens' identity perceptions and visit intentions regarding an everyday-life-oriented cultural complex, using the West Seoul Culture Plaza as a case. Drawing on 2,348 valid responses from an online survey conducted between June and July 2025, the study present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ross-item comparisons on perceived necessity, identity typologies, expected visit frequency for the complex and its core components (library, community sports facilities, and kids' café), demand for spaces, programs, amenities, and outdoor uses, and perceived barriers to use. The results indicate very high perceived necessity, and the plaza's identity converges on three axes: everyday cultural enjoyment, health and community sports, and family-centered experiences. The library and sports facilities were identified as the key anchors, and the strong intention to participate regularly in linked spaces and cross-facility programs supports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routinized operating system. However, major barriers included insufficient integrated information and promotion, limited specialization and program diversity, difficulties in seamless cross-facility use, and inadequate rest and convenience spa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operating strategy that combines unified guidance, reservation, and circulation systems; routinized cross-programming across facilities; expansion of seating and convenience amenities with congestion management; safety- and hygiene-centered operation of the kids' café; and activation of outdoor areas through a garden-based cultural plaza.

키워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 정체성 인식, 방문의향, 통합운영,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Everyday-life cultural complex, Identity perception, Visit intention, Integrated operation, Public library, Community sports facilities

* 이 연구는 2025년 서서울문화플라자 운영방안 마련 용역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kwak@cnu.ac.kr / ISNI 0000 0004 6812 0586) (제1저자)
*** 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oinchang@daejin.ac.kr / ISNI 0000 0004 6108 9280) (교신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bs@jbnu.ac.kr / ISNI 0000 0004 6850 9823)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6년 5월 15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5월 19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6월 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2): 183-213,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2.183>

© Copyright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도시 생활권의 공공 인프라는 더 이상 단일 기능 시설의 확충만으로 주민의 일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문화향유, 평생학습, 건강 증진, 돌봄과 여가가 서로 분절된 채 제공될 경우 이용자는 이동 비용과 시간 제약 속에서 서비스 접근을 포기하거나, 특정 시설만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공공시설 계획과 운영이 “공급 중심의 기능 나열”에서 “이용 경험 중심의 통합 설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최근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생활체육시설의 생활권 거점화, 가족친화형 공공서비스 확대와 같은 정책 흐름은 이와 같은 전환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고재민, 임호균, 2012; 박승진 외, 2017; UNESCO & IFLA, 2022).

복합문화공간은 이러한 정책 전환을 구현하는 대표적 공간 형식이지만, ‘복합’이 곧바로 시너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선행연구는 복합시설의 성과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이용자가 기능 간 전이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만드는 동선·안내·예약·프로그램 연계 등 통합운영 체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해 왔다(신영지, 노영희, 2020; Bitner, 1992). 또한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제3의 장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열람·대출 중심에서 체류·참여·커뮤니티 활동을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때 공간의 정체성은 시설의 홍보 문구가 아니라 주민이 부여하는 의미와 기대의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논의도 축적되어 왔다(도지강, 이선정, 2025; Aabø & Audunson, 2012; Oldenburg, 1999).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 복합시설의 ‘정체성 인식’과 ‘방문의향’을 함

께 분석하는 것은, 건립 타당성의 확인을 넘어 운영·서비스 설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 과제로 자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서울문화플라자는 서울 서남권 생활권에 도서관·생활체육시설(수영장 포함)·키즈카페를 결합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기획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문화·학습·건강·가족 체험 요구를 통합적으로 수용할 잠재적 거점으로 주목된다. 특히 서남권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활권 기반 서비스 수요가 중첩되는 지역으로, 복합시설이 ‘가끔 방문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용되는 일상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복합시설 연구는 시설 유형별 사례 분석이나 공간·프로그램 구성 논의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계획 단계에서 대규모 설문자료를 통해 주민의 정체성 인식(무엇으로 이해되는가)과 방문의향(얼마나 자주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통합운영의 장애요인(무엇이 이용을 막는가)을 하나의 분석틀로 연결해 제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노영희, 김윤정, 2019; 노지윤, 노영희,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서서울문화플라자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의 정체성 인식과 방문의향을 중심으로 한 운영 전략 설계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서서울문화플라자 구성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고, 둘째, 주민이 기대하는 복합시설의 정체성 유형이 어떤 축으로 수렴하는지 규명하며, 셋째, 복합시설 및 구성시설(시립도서관, 생활체육시설, 키즈카페)의 예상 방문 빈도를 통해

정기 이용 기반을 점검하고, 넷째, 공간·프로그램·편의시설·야외공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다섯째, 정보·홍보, 전문성·다양성, 통합 이용 등 운영상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복합시설의 성공 조건을 “시설 구성의 적합성”이 아니라 “정체성-이용 의향-통합운영”의 연결 구조로 설명하고, 계획 단계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운영 제언으로 환류시키는 것을 연구의 핵심 기여로 설정한다.

2. 선행연구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에 관한 논의는 단일 기능 시설의 단순 집적을 넘어, 생활권 안에서 ‘반복 방문-체류-참여’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도록 공간과 운영이 결합된 공공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운영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국내 공공도서관 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공공도서관의 기능 확장과 이용 행태 변화에 대응하여 공간 프로그램과 면적 구성의 재편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상하였으며, 장서·열람 중심에서 문화·교육·커뮤니티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가 보고되었다(고재민 외, 2015).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의 복합화 경향을 유형화하고 계획 방향을 제시하려는 연구로 이어졌고(고재민, 임호균, 2012), 공공도서관이 두 개 이상의 공공 기능과 결합하는 복합화가 강화되는 흐름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김소연, 임호균, 2025). 건축·공간계획 관점에서도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복합화’가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연결·개방·접근성을 구현하는

새로운 공간 연출을 요구한다는 점이 제기되며, 해외 사례(예: 시애틀 중앙도서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도서관 계획의 한계와 보완 방향이 논의되었다(강재중, 2019).

한편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공간 구성과 운영 논의는 ‘무엇을 더 갖추는가’보다 ‘어떻게 경험을 연결하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도서관을 복합문화기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간 구성은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적 교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께 수용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하며(곽승진 외, 2017), 공유문화의 확산 속에서 개방성·다원성·접근성을 토대로 정보공유공간(Information Commons)과 학습공유공간(Learning Commons) 같은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어 왔다(황미영, 2018). 또한 르페브르의 공간생산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적 특성을 문화적 상징성, 동적 복합성, 접근성, 정서적 공동구축성, 기능적 통합성으로 개념화하며 ‘공간’이 물리적 형태를 넘어 사회적 실천과 의미를 통해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도지강, 이선정, 2025). 최근에는 열람공간의 구성 변화와 이용자 시지각 특성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정적 열람 중심에서 다양한 체류·활동·상호작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한·일 사례 비교로 확인하기도 했다(손다희, 이남규, 2025). 이 흐름은 복합시설 내 도서관이 단일 기능의 ‘부분’이 아니라 정체성과 이용 경험을 조직하는 ‘앵커(Anchor)’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도서관의 플랫폼화는 서비스·프로그램 측면에서도 구체화되어 왔다.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는 정보공간·교육공

간·휴게공간에 대한 선호, 복합문화공간의 기대와 운영 과제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간 설계와 프로그램 편성의 근거를 제공하였다(노영희, 김윤정, 2019). 또한 중요도-만족도(IPA) 분석을 통해 복합문화공간 이용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용자 경험을 기준으로 개선 영역을 식별하는 연구가 축적되었다(노지윤, 노영희, 2019). 프로그램 운영 차원에서는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공공도서관의 공간 유형과 프로그램 현황을 정리하고, 전담인력·예산·홍보·프로그램 개발 역량 같은 운영 기반의 취약성이 성과를 제약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신영지, 노영희, 2020). 더 나아가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 모델은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 정체성을 확장하는 운영 모델로 논의되었고(박옥남, 박희진, 2017), 라키비움 도입 전략 연구는 복합문화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디지털 라키비움 등을 연계한 미래형 도서관 구축 절차를 제시하며 “공간-서비스-운영규정”의 통합 설계를 강조하였다(곽승진, 이정미, 2018). 메이커 스페이스 논의 역시 ‘체험·창작’이 도서관의 학습·문화 기능과 결합될 때 이용자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보영, 곽승진, 2017). 이러한 국내 연구들은 복합화의 성패가 시설의 물리적 결합 자체보다 운영 역량과 프로그램 설계, 이용자 경험의 연결성에 의해 좌우됨을 일관되게 시사한다.

국제적으로도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 만남의 장소’이자 사회적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는 공적 공간으로 조명되어 왔다. 공공도서관을 지역 커뮤니티의 미팅플레이스로 분석한 연구는 이용자들이 도서관 공간을 사회적 활동과

일상적 체류의 맥락에서 활용하며, 다문화·다세대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중요한 접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Aabø & Audunson, 2012). 이 논의는 제3의 장소(third place)로서 지역의 비공식적 공공공간이 공동체의 관계망과 생활 리듬을 형성한다는 관점과도 접속한다(Oldenburger, 1999). 또한 공공도서관을 교육·문화·포용·정보의 ‘살아있는 힘’으로 규정한 국제 규범은, 도서관이 생활권 단위의 공공 플랫폼으로서 평생학습과 문화 향유, 사회적 포용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도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IFLA & UNESCO, 2022; UNESCO & IFLA, 2022). 도서관을 문화 매개와 미적 교육의 장으로 보는 연구 역시, 도서관이 콘텐츠 소비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중개자(cultural mediation)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Netzel et al., 2018).

한편 복합문화공간의 이용 의향과 정체성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간 경험과 행동의도 간 관계를 다루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행동의도 연구에서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태도·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통제가 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며(Ajzen, 1991), 공공시설 이용에서도 ‘필요성 인식’이나 ‘기대’가 방문의향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서비스 환경이 이용자 행동과 감정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비스스케이프 개념은(Bitner, 1992) 복합문화공간에서 좌석·편의시설·동선·안내·혼잡도·안전·위생 같은 환경 요인이 체류 경험과 재방문 의향을 좌우한다는 경험적 관찰과 정합적이다. 경험경제 관점에서 공공시설의 가치가 ‘재화·서비스 제공’만이 아니라 체험의

설계와 기억 가능한 경험의 제공을 통해 강화된다는 논의는(Pine & Gilmore, 1999)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이 프로그램의 연속성·정체성, 참여와 몰입을 매개하는 큐레이션, 공간 간 전이(transition)를 매끄럽게 만드는 통합운영 체계에 의해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은 이용자가 공간에 부여하는 정체성·의존성이 행동과 만족, 재방문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며(Williams & Vaske, 2003), 복합문화공간의 '정체성 인식'이 방문의향을 설명하는 핵심 구성개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종합하면, 선행연구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의 성과가 도서관을 앵커로 한 문화·학습·커뮤니티 기능의 강화(곽승진 외, 2017; 노영희, 김윤정, 2019), 생활체육·가족친화 기능과의 결합을 통해 생활권 루틴에 편입되는 체류 경험의 설계(김소연, 임호균, 2025), 통합 안내·예약·동선·프로그램 연계 등 운영 시스템의 완성도(신영지, 노영희, 2020), 이용자가 인식하는 정체성 및 공간 경험이 방문의향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Ajzen, 1991; Bitner, 1992; Williams & Vaske, 2003)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복합시설의 구성요소별 수요(도서관·체육·키즈)와 통합운영의 장애요인, 그리고 정체성 인식과 방문의향을 하나의 분석틀로 연결하여 계획 단계에서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서울문화플라자 설문자료를 통해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의 정체성 인식과 방문의향을 중심에 두고, 공간·프로그램·편익시설·야외공간의 우선순위 및 통합운영 과제를 동시에 도출함으로써 복합시설 운영전략

의 실증 근거를 확장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및 연구질문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서울문화플라자(도서관·생활체육시설·키즈카페로 구성되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시민 인식과 이용 의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운영·서비스 설계의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설문조사 기반 단면적 기술·설명 연구로 설계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1) 사업 수용성(필요성 인식), (2) 복합시설 정체성 인식, (3) 복합시설 및 구성시설의 방문의향(예상 방문 빈도), (4) 공간·프로그램·편익시설·야외공간 등 구성 요소의 우선순위, (5) 이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편 요인과 통합 운영 개선 과제의 도출에 두었다.

자료는 서울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약 1개월간 온라인 방식으로 수집되었으며, 총 2,348부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만, 응답자의 인구통계 분포가 실제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비교가 아닌 단순화 표집 방법 분석으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설문 문항은 서서울문화플라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문서의 시설 기능·운영 쟁점,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는 문화활동 수요 항목, 그리고 관련 정책 논의에서 제기된 사업 추진 쟁점을 종합하여 구성되었다.

변수 구성은 설문의 측정 수준에 근거해 설정하였다. 필요성 인식과 역할·서비스 선호는

리커트 척도 점수(평균, 표준편차)로 요약하였고, 방문의향은 복합시설 및 시설별 예상 방문 빈도를 서열형 지표로 처리하였다. 정체성 인식, 선호 시설, 개설 희망 공간, 희망 융합 서비스 유형 등은 범주형(단일 또는 다중 선택) 변수로 구성하였다.

3.2 연구질문

본 연구는 서서울문화플라자를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제하고,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주민 인식과 이용 의향, 시설·프로그램·공간에 대한 요구, 그리고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약 요인을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향후 운영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논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설문자료는 단순한 선호 조사 수준을 넘어, 복합시설의 정체성(무엇으로 인식되는가)과 이용 잠재력(얼마나 자주 이용될 것인가), 공간·프로그램의 우선순위(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가), 통합운영의 장애요인(왜 불편해지는가)을 동시에 포착하고 있어, 계획 단계의 정책 설계에 직접 연결되는 연구질문 설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 RQ 1. 서서울문화플라자 구성에 대한 주민의 필요성 인식은 어느 수준이며, 사업 추진의 사회적 수용성은 충분한가.
- RQ 2. 주민이 기대하는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정체성은 어떠한 유형(생활문화 중심, 생활체육 중심, 가족친화 중심, 기술 기반 등)으로 분포하며, 복합시설의 핵심 지향

점은 무엇으로 수립되는가.

- RQ 3. 서서울문화플라자 및 주요 구성시설(시립도서관, 생활체육시설, 키즈카페)의 예상 방문 빈도는 어느 수준이며, 정기적 이용 기반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 RQ 4. 주민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핵심 공간·편의시설·야외공간 활용 방식은 무엇이며, 체류형 복합공간으로서의 공간 구성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 RQ 5. 복합시설 이용에서 예상되는 주요 불편 요인은 무엇이며, 통합 운영(정보·예약·동선·프로그램 연계) 관점에서 개선 우선순위는 어떻게 도출되는가.

위 연구질문은 서서울문화플라자를 “복합시설의 공급 계획”이 아니라 “주민이 기대하는 생활밀착형 장소정체성의 형성 및 이용 행동의 잠재 구조”로 분석하기 위한 질문 체계이며, 정체성 인식-방문의향-프로그램/운영요구를 하나의 분석 경로로 연결해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3.3 설문설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조사는 서서울문화플라자 발전 및 운영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설문의 핵심 목적은 서울 서남권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키즈카페로 구성되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이용 의향을 확인하고, 공간구성·운영방향·프로그램·시설 등에 관한 만족도 및 요구도를 체계적으로 측정·분석하는 데 있다.

설문 문항은 사업의 정책적 맥락과 시민 문화향유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 문항 구성의 근거를 세 축에 두고 체계화하였다. 첫째, 「서서울문화플라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시설 기능·역할·운영방안을 토대로 복합시설의 필수 기능과 운영 쟁점을 문항화하였다. 둘째,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가 제공하는 시민 문화활동 양상과 문화생활 트렌드 항목을 참조하여, 복합문화공간에서 기대되는 프로그램·서비스 수요를 포착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셋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서에서 논의된 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적 관심 지점을 반영하여, 주민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공간·시설·운영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문 구조를 설계하였다.

문항 구성은 복합시설의 '전체 이용 의향'과 '시설별 수요'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다층 구조로 배열하였다. 설문은 크게 다섯 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째, '일반사항 및 이용 의향'에서는 성별·연령·거주지 등 기본 특성과 함께 서서울문화플라자 필요성 인식, 개설 희망 공간, 가장 자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전체 시설의 예상 방문 빈도를 측정하여 이후 분석의 기준 변수를 확보하였다. 둘째, '시립도서관 운영전략 및 공간구성' 영역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와 불편 요인을 확인하고,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시립도서관의 예상 방문 빈도, 도서관의 중요 역할 인식, 특화 분야 선호, 제공 희망 서비스, 복합시설과 연계해 운영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측정하였다. 셋째, '생활체육시설 이용 수요 및 운영 방향' 영역에서는 체육시

설 이용 빈도와 불편 요인, 복합시설 내 체육시설 예상 방문 빈도, 설치 희망 체육시설, 제공 희망 프로그램, 특히 수영장에서 운영되길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생활체육 수요를 구체화하였다. 넷째, '키즈카페 이용 수요 및 운영 방향' 영역에서는 키즈카페 이용 빈도와 불편 요인, 복합시설 내 키즈카페 예상 방문 빈도, 키즈카페의 중요 요소, 이용 희망 연령대, 제공 희망 주요 프로그램, 부모 편의시설 요구를 측정하여 가족친화형 기능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다섯째, '복합시설 운영 방향·프로그램 및 공간구성 전략' 영역은 복합시설로서의 통합 운영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복합시설 이용 빈도 및 불편 요인, 시설 간 연계공간·연계프로그램 예상 이용 빈도,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정체성 인식, 기대 프로그램 및 서비스, 희망 융합서비스 유형, 복합체험 프로그램의 적합 유형, 필요한 공간, 설치 희망 편의시설, 야외공간 활용 방안, 기타 의견(개방형)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설문 구조는 서서울문화플라자를 단일 시설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가정하고, 주민의 기대가 시설 단위(도서관·체육·키즈카페)에서 형성되는 방식과 복합 운영(연계공간·융합서비스·야외활용 등)에서 재구성되는 방식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틀에서 핵심이 되는 정체성 인식 문항은 복합시설 운영전략 영역에 배치하여, 응답자가 시설별 요구를 충분히 고려한 뒤 복합시설 전체의 정체성을 선택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개념 측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4. 설문분석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징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여성 59.41%(1,395명), 남성 40.59%(953명)로 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남=1, 여=2 코딩 기준 평균 1.594, 표준편차 0.491). 이는 서서울문화플라자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상대적으로 여성 응답의 관점에서 더 많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운영전략 수립 시 여성 및 가족 단위 이용 맥락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편의성, 체류 환경, 돌봄 연계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령 분포에서는 30대가 36.58%(859명)로 가장 높고 40대가 33.30%(782명)로 뒤를 이어, 표본이 30~40대에 집중되어 있다(평균 3.463,

표준편차 1.024). 따라서 서서울문화플라자의 핵심 잠재 이용층은 30~40대 중심으로 추정되며, 문화향유·생활체육·가족친화 기능이 결합된 세대 연계형 콘텐츠와 프로그램 구성이 방문의향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다.

거주지 분포는 강서구 거주 응답이 49.14%(1,152명)로 절반에 가까워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 13.42%, 양천구 10.4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도 8.26%(194명)로 일정 규모를 형성했으며(평균 2.723, 표준편차 2.262), 강서구 중심 생활권 수요가 뚜렷한 동시에 인접 자치구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확인된다. 이에 따라 운영 방향은 강서구 기반 이용을 중심으로 설정하되, 양천·영등포·금천 등 서남권 권역 단위 연계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표 1〉 참조).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분	설문 항목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성별	남자	953명(40.59%)	1.594	0.491
	여자	1,395명(59.41%)		
연령	10대	7명(0.30%)	3.463	1.024
	20대	394명(16.78%)		
	30대	859명(36.58%)		
	40대	782명(33.30%)		
	50대	223명(9.50%)		
	60대	66명(2.81%)		
	70대 이상	17명(0.72%)		
거주지	강서구	1,152명(49.06%)	2.723	2.262
	양천구	245명(10.43%)		
	영등포구	315명(13.42%)		
	구로구	181명(7.71%)		
	금천구	102명(4.34%)		
	관악구	93명(3.96%)		
	동작구	66명(2.81%)		
	기타	194명(8.26%)		

4.2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서울문화플라자의 건립에 대한 요구

4.2.1 서서울문화플라자의 필요성

서서울문화플라자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87.2%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매우 긍정적' 응답이 59.8%로 과반을 차지해 지역 주민의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81%에 불과해 반대 의견은 극히 제한적이며,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드러난다. 필요성 인식의 평균값은 4.427로 중간값(보통=3)을 크게 상회하여,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에 대한 주민 동의 기반이 견고하고 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을 시사한다(〈표 2〉 참조).

4.2.2 개설되었으면 하는 공간

개설되었으면 하는 공간에 대한 응답은 서서울문화플라자에 대한 기대가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과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생활권 기반 복합공간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에서 '가족 관련 공간'(19.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평생학습 공간'(17.52%), '청소년 공간'(15.87%), '아동 공간'

(15.56%)이 상위권을 형성해, 다세대가 공존·교차하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서울문화플라자가 도서관·체육·키즈 기능을 단순 병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 단위 체류와 세대 간 동반 이용을 전제로 한 공간구조를 갖춰야 함을 시사한다.

동시에 실질적 삶의 문제와 포용성을 반영한 공간 요구도 확인된다. '취업·창업 공간'(13.03%)은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포함하는 직업 전환·재교육·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기능에 대한 정책적 수요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장애인 공간'(7.44%)은 접근성 향상과 이용권 보장을 넘어 참여 기반 프로그램과 서비스 설계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또한 '노인 관련 공간'(9.93%)의 비중은 고령화 환경에서 건강·여가·관계망 형성 및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공간적 기반이 복합시설 안에서 일정 수준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표 3〉 참조).

4.2.3 가장 자주 방문할 것 같은 시설

가장 자주 방문할 것 같은 시설에 대한 응답은 서서울문화플라자의 핵심 이용 축이 '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에 형성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도서관이 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생활체육시설이 26.9%로 뒤를 이었다. 반면 키즈카페, 야외공간, 편의시설은 상대

〈표 2〉 서서울문화플라자의 필요성

서서울문화플라자 필요성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전혀 필요하지 않다	19명(0.81%)	4.427	0.824
부정적이다	51명(2.17%)		
보통이다	242명(10.31%)		
다소 긍정적이다	632명(26.92%)		
매우 긍정적이다	1,404명(59.80%)		

〈표 3〉 개설되었으면 하는 공간

개설되었으면 하는 공간	응답자 수(비율)	개설되었으면 하는 공간	응답자 수(비율)
아동 관련 공간	707명(15.56%)	장애인 관련 공간	338명(7.44%)
노인 관련 공간	451명(9.93%)	취업·창업 관련 공간	592명(13.03%)
가족 관련 공간	886명(19.50%)	평생학습공간	796명(17.52%)
청소년 관련 공간	721명(15.87%)	기타	53명(1.17%)

적으로 부차적 수요로 나타났으나, 가족 단위 복합공간의 체류성과 만족도를 결정하는 보완 기능으로서의 중요성이 뚜렷하다(〈표 4〉 참조).

〈표 4〉 가장 자주 방문할 것 같은 시설

가장 자주 방문할 것 같은 시설	응답자 수(비율)
시립도서관	855명(36.41%)
생활체육시설	631명(26.87%)
키즈카페	365명(15.55%)
야외공간	238명(10.14%)
편의시설(예: 식음료시설, 북카페, 판매점 등)	252명(10.73%)
없음	7명(0.30%)

4.2.4 서서울문화플라자 예상 방문 빈도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예상 방문 빈도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5.9%가 월 1회 이상 방문 의사를 밝혔고, 주 1회 이상도 36.5%로 정기적 이용 가능성이 확인된다. 이는 서서울문화플라자가 일상형 복합공간으로 기능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주·월 단위의 상설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반복 방문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계절형·체험형 콘텐츠를 순환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빈도 이용자 층이 두터운 만큼 예약제, 회차 운영, 대기시간 최소화 등 운영 효율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표 5〉 참조).

4.3 시립도서관 운영전략 및 공간구성

4.3.1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는 ‘월 1~2회’가 40.72%로 가장 높았고, ‘주 1회 이상’도 29.17%로 정기적 고이용층이 확인된다. ‘연 2~6회’는 23.85%로 간헐적 이용도 적지 않았으며, ‘거의 이용하지 않음’은 6.26%로 낮게 나타났다. 평균 이용 빈도는 2.072(표준편차 0.881)로, 전반적으로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수요가 우세한 분포를 보인다(〈표 6〉 참조).

4.3.2 공공도서관 이용 시 불편한 점

공공도서관 이용 시 불편 요인은 ‘희망 자료 부

〈표 5〉 서서울문화플라자 예상 방문 빈도

서서울문화플라자 예상 방문 빈도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주 1회 이상	857명(36.50%)	1.903	0.825
월 1~2회	928명(39.52%)		
연 2~6회	497명(21.17%)		
그보다 드물게	66명(2.81%)		

〈표 6〉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주 1회 이상	685명(29.17%)	2.072	0.881
월 1~2회	956명(40.72%)		
연 2~6회	560명(23.85%)		
그보다 드물게	147명(6.26%)		

족(19.3%)이 가장 높았고, '좌석 부족(17.9%), '편의시설 부족(17.6%)이 뒤를 이어 이용 환경과 자원 측면의 결핍이 핵심 제약으로 확인된다. 또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부족(16.0%)과 '운영 시간 제약(14.2%)도 주요 불편으로 나타나, 단순 열람 중심 운영만으로는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동·가족 공간 부족과 정보취약계층 배려 미흡은 응답 비중은 크지 않지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서 포용성과 접근성을 좌우하는 쟁점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표 7〉 참조).

〈표 7〉 공공도서관 이용 시 불편한 점

공공도서관 이용 시 불편한 점	응답자 수(비율)
공간 협소 및 좌석 부족	791명(17.94%)
희망 자료(도서, 전자자료 등) 부족	851명(19.31%)
문화·교육 프로그램 부족	707명(16.04%)
운영(이용) 시간 제한	628명(14.25%)
휴게 공간, 카페 등 편의시설 부족	777명(17.63%)
아동·가족 이용자 위한 전용 공간 부족	403명(9.14%)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배려 부족	172명(3.90%)
기타	79명 (1.79%)

4.3.3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시립도서관 예상 방문 빈도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시립도서관의 예상 방문 빈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4.59%가 월 1회 이상 방문의향을 보였고, '월 1~2회'

가 46.17%로 가장 많았으며 '주 1회 이상'도 38.42%로 높은 수준이었다. 평균 방문의향은 1.807로, 전반적으로 주 1회~월 1회 사이의 정기적 이용을 기대할 수 있는 분포로 해석된다(〈표 8〉 참조).

4.3.4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시립도서관의 중요 역할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시립도서관의 중요 역할에 대한 평가는 전 항목 평균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주민이 도서관에 대해 다층적 기능을 폭넓게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통적 지식정보 제공'의 평균이 4.357로 가장 높았고, '일반 공공서비스 연계 플랫폼' 역할도 4.256으로 높게 평가되어, 도서관을 기본적인 정보·지식 허브이자 지역 공공서비스의 연결 거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확인된다. 반면 '디지털 콘텐츠 및 스마트 기술 기반 미래형 서비스'는 평균 4.015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첨단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부재하다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체감도와 구체적 상상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표 9〉 참조).

4.3.5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시립도서관의 특화 분야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시립도서관의 특화 분

〈표 8〉 시립도서관 예상 방문 빈도

시립도서관 예상 방문 빈도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주 1회 이상	902명(38.42%)	1,807	0,784
월 1~2회	1084명(46.17%)		
연 2~6회	274명(11.67%)		
그보다 드물게	88명(3.75%)		

〈표 9〉 시립도서관의 중요 역할

분류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평균	STD.
다양한 장서를 갖춘 지식정보 제공 기능 강화 (전통적 도서관 기능)	21명 0.89%	59명 2.51%	259명 11.03%	730명 31.09%	1,279명 54.47%	4,357	0,842
문화·예술·창작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 제공	31명 1.32%	67명 2.85%	294명 12.52%	835명 35.56%	1,121명 47.74%	4,256	0,878
지역 커뮤니티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조성	46명 1.96%	115명 4.90%	414명 17.63%	764명 32.54%	1,009명 42.97%	4,097	0,985
디지털 콘텐츠 및 스마트 기술(AI 기반 추천, VR 등)을 활용한 미래형 서비스 강화	53명 2.26%	132명 5.62%	467명 19.89%	771명 32.84%	925명 39.40%	4,015	1,01
전 연령층을 위한 체험 중심의 독서·교육·놀이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	35명 1.49%	55명 2.34%	330명 14.05%	788명 33.56%	1,140명 48.55%	4,253	0,889
인근 도서관 및 공공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 지식문화 서비스 구축	22명 0.94%	55명 2.34%	328명 13.97%	838명 35.69%	1,105명 47.06%	4,256	0,85

야 선호는 ‘미래 역량’과 ‘생활 밀착형 수요’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선호는 과학기술·미래교육·디지털 리터러시(18.80%)였고, 아동·청소년 독서 및 창의 교육(17.28%), 생활체육 및 건강관리(16.77%)가 뒤를 이었다. 동시에 음악·미술·공연예술(14.81%), 인문학 및 지역문화(12.64%) 등 전통적인 문화예술·인문 영역도 일정 수준의 수요가 확인되어, 특화 전략이 특정 분야로의 단선적 집중이 아니라 복합적 균형을 요구함을 보여준다(〈표 10〉 참조).

〈표 10〉 시립도서관의 특화 분야

시립도서관의 특화 분야	응답자 수(비율)
음악, 미술 및 공연예술	730명(14.81%)
생활체육 및 건강관리	827명(16.77%)
아동·청소년 교육 및 창의 독서	852명(17.28%)
과학기술 및 미래교육 (AI, 코딩 등), 디지털 리터러시 및 미디어 활용 교육	927명(18.80%)
생태환경 및 기후변화	450명(9.13%)
부모 교육 및 육아 지원	487명(9.88%)
인문학 강좌, 지역 역사 및 전통문화, 다문화 및 국제이해	623명(12.64%)
기타	34명(0.69%)

4.3.6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시립도서관이 제공할 희망하는 서비스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시립도서관이 제공하

길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기대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커뮤니티 기능'이 핵심 수요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선호는 특강·문화 프로그램 운영(4.244점)으로, 독서토론·북콘서트·공연 등 체험형 문화활동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다음으로 아동·가족 대상 키즈존 및 체험 프로그램(4.135점), 지역 커뮤니티 활동 지원(4.114점), 지역 예술가·보존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4.040점)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온라인·디지털 자료 활용 서비스(VR 포함)도 3.9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으며, 다문화·정보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는 평균 3.58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긍정 응답이 63% 이상으로 나타나 기본 수요는 충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표 11〉 참조).

4.3.7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시립도서관이 복합 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면 좋은 프로그램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시립도서관이 복합 시설과 연계해 운영할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는 '독서-건강-가족-야외-지역참여'로 수렴되는 융합 수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가장 높은 선호는 생활체육(스포츠)과 연계한 독서 및 건강 프로그램으로, 평균 4.197점이며 '매우 선호' 응답이 44.21%로 나타나 복합시설의 핵심 기능 결합(도서관+체육)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확인된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문화·창작 프로젝트(4.134점)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도서관이 지역 참여와 창작 활동의 플랫폼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공간의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야외 정원에서의 독서·문화 행사(4.022점)와 키즈 카페 연계 가족 독서 프로그램(4.017점)이 모두 4점 이상으로 확인되어, 실내 중심 운영을

〈표 11〉 시립도서관이 제공하길 희망하는 서비스

항목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평균	STD.
온라인·디지털 자료 활용 서비스(VR 도서관) 및 창작·체험형 콘텐츠 제공(미디어 창작, 코딩 등)	63명 2.68%	127명 5.41%	462명 19.68%	814명 34.67%	882명 37.56%	3.99	1.015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예: 독서토론, 북큐레이션 등, 공연·전시·강연 등)	23명 0.98%	54명 2.30%	305명 12.99%	910명 38.76%	1,056명 44.97%	4.244	0.837
아동·가족 이용자를 위한 키즈존 및 가족 열람실 운영	54명 2.30%	98명 4.17%	418명 17.80%	684명 29.13%	1,094명 46.59%	4.135	1
지역 동아리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인문·교양 강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8명 1.19%	74명 3.15%	373명 15.89%	940명 40.03%	933명 39.74%	4.14	0.878
지역 예술가, 체육인, 보육 전문가와 연계한 협력형 문화 프로젝트 운영	47명 2.00%	73명 3.11%	432명 18.40%	833명 35.48%	963명 41.01%	4.104	0.942
다문화 가정, 정보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포용 프로그램 제공	93명 3.96%	132명 5.62%	590명 25.13%	782명 33.30%	751명 31.98%	3.837	1.061

〈표 12〉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시립도서관이 복합시설과 연계 운영하면 좋은 프로그램

항목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평균	STD.
생활체육(스포츠)과 연계한 독서 및 건강 프로그램	45명 1.92%	60명 2.56%	321명 13.67%	884명 37.65%	1,038명 44.21%	4.197	0.903
키즈카페(아동보육)와 연계한 가족 독서 프로그램	77명 3.28%	119명 5.07%	434명 18.48%	775명 33.01%	943명 40.16%	4.017	1.041
야외 독서정원에서 진행되는 독서·문화 행사	26명 1.11%	65명 2.77%	325명 13.84%	882명 37.56%	1,050명 44.72%	4.22	0.865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문화·창작 프로젝트	39명 1.66%	71명 3.02%	377명 16.06%	910명 38.76%	951명 40.50%	4.134	0.905

넘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융합형 독서·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가 충분함을 보여준다(〈표 12〉 참조).

4.4 생활체육시설 이용 수요 및 운영 방향

4.4.1 체육시설 이용 빈도

체육시설 이용 빈도는 ‘월 1~2회’ 이용이 38.93%(914명)로 가장 높았고, ‘주 1회 이상’ 정기 이용자도 34.03%(799명)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이용 빈도는 2.049(표준편

차 0.98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규칙적 이용 경향이 확인된다. 즉 응답자의 70% 이상이 월 1회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수요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표 13〉 참조).

4.4.2 체육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체육시설 이용 시 불편 요인은 ‘시설 노후화’가 30.92%(1,21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습 프로그램 부족’(23.61%), ‘대기 시간’(16.20%)이 뒤를 이었다. 또한 안전관리 미흡(14.06%)

〈표 13〉 체육시설 이용 빈도

체육시설 이용 빈도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주 1회 이상	799명(34.03%)	2.049	0.982
월 1~2회	914명(38.93%)		
연 2~6회	356명(15.16%)		
그보다 드물게	279명(11.88%)		

〈표 14〉 체육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체육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응답자 수(비율)	체육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응답자 수(비율)
대기 시간	638명(16.20%)	강습 프로그램 부족	930명(23.61%)
시설 노후화	1,218명(30.92%)	주차공간 부족	499명(12.67%)
안전관리 미흡	554명(14.06%)	기타	100명(2.54%)

과 주차공간 부족(12.67%)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어,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선택·지속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 품질과 운영체계가 핵심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14〉 참조).

4.4.3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체육시설 예상 방문 빈도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체육시설의 예상 방문 빈도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1.43%가 월 1회 이상 이용 의향을 보였고, '주 1회 이상'이 41.35%로 가장 높았으며 '월 1~2회'도 40.0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평균은 1.843(표준편차 0.888)로, 전반적으로 규칙적인 이용이 기대되는 분포로 해석된다(〈표 15〉 참조).

4.4.4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설치되길 희망하는 체육시설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설치 희망 체육시설은 수영장(22.13%)이 가장 높았고, 요가·필라테스 공간(19.65%), 다목적 체육관(19.15%), 헬스장(18.38%)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운동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유아 전용 체육공간(12.70%)도 일정 비중을 차지해 가족 단위 이용을 전제로 한 세대 맞춤형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표 16〉 참조).

〈표 16〉 설치되길 희망하는 체육시설

설치되길 희망하는 체육시설	응답자 수(비율)
수영장	1,115명(22.13%)
헬스장(운동기구 중심)	926명(18.38%)
요가·필라테스 등 정적인 운동 공간	990명(19.65%)
다목적 체육관(배드민턴, 농구 등 실내 스포츠)	965명(19.15%)
유아 및 아동 전용 체육공간	640명(12.70%)
고령자 및 재활운동 특화 체육공간	358명(7.10%)
기타	45명(0.89%)

4.4.5 생활체육시설에서 제공하길 희망하는 프로그램

생활체육시설에서 제공되길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전문성'과 '일상 이용성'에 대한 요구가 함께 높게 나타났다. 전문 강습 프로그램의 선호가 평균 4.35로 가장 높았고, 자유이용 공간(헬스장·요가실 등) 4.23, 운동처방 및 건강상담 서비스 4.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 항목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확인되어, 주민은 단순 시설 이용을 넘어 체계적 강습과 건강관리까지 포함하는 고도화된 생활체육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17〉 참조).

4.4.6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수영장에서 운영되길 희망하는 프로그램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수영장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성인 중심의 강습 수요가 가장 두드러졌다. 성인 강습 프로그램이 30.52%(1,376

〈표 15〉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체육시설 예상 방문 빈도

체육시설 이용 빈도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주 1회 이상	971명(41.35%)	1.843	0.888
월 1~2회	941명(40.08%)		
연 2~6회	269명(11.46%)		
그보다 드물게	167명(7.11%)		

〈표 17〉 생활체육시설에서 제공하길 희망하는 프로그램

항목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평균	STD.
자유이용 공간(헬스장, 요가실 등)	54명 2.30%	67명 2.85%	326명 13.88%	744명 31.69%	1,157명 49.28%	4.228	0.949
전문 강습 프로그램(필라테스, 수영, 탁구 등)	32명 1.36%	52명 2.21%	248명 10.56%	755명 32.16%	1,261명 53.71%	4.346	0.857
운동처방 및 건강 상담 서비스	48명 2.04%	75명 3.19%	343명 14.61%	787명 33.52%	1,095명 46.64%	4.195	0.942

〈표 18〉 수영장에서 운영되길 희망하는 프로그램

수영장에서 운영되길 희망하는 프로그램	응답자 수(비율)	수영장에서 운영되길 희망하는 프로그램	응답자 수(비율)
유아·어린이 강습	863명(19.14%)	자유 수영	1,083명(24.02%)
성인 강습	1,376명(30.52%)	재활 수영	480명(10.65%)
아쿠아로빅	681명(15.10%)	기타	26명 (0.58%)

명)로 최상위였고, 자유 수영(24.02%), 유아·어린이 강습(19.14%), 아쿠아로빅(15.10%), 재활 수영(10.65%) 순으로 나타나 강습·자유이용·생애주기 맞춤 프로그램이 함께 요구되는 구조가 확인된다(〈표 18〉 참조).

1~2회' 27.39%, '연 2~6회' 22.74%, '주 1회 이상' 10.78%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이용 빈도는 2.902로 낮은 편에 해당한다. 이는 키즈카페가 일상적 정기 방문 공간이라기보다 휴일·여가 상황에서 선택되는 비정기적 이용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19〉 참조).

4.5 키즈카페 이용 수요 및 운영 방향

4.5.1 키즈카페 이용 빈도

키즈카페 이용 빈도는 전반적으로 낮고 간헐적 이용이 우세한 분포로 나타났다. '그보다 드물게' 이용하는 응답이 39.10%로 가장 높았고, '월

4.5.2 키즈카페 이용 시 불편한 점

키즈카페 이용 시 불편 요인은 운영·관리 역량과 공간·콘텐츠의 부족으로 요약된다. 가장 큰 불편은 서비스 인력 부족 및 관리 미흡(21.88%)이었고, 공간 부족(21.03%)이 뒤를 이

〈표 19〉 키즈카페 이용 빈도

키즈카페 이용 빈도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주 1회 이상	253명(10.78%)	2.902	1.042
월 1~2회	643명(27.39%)		
연 2~6회	534명(22.74%)		
그보다 드물게	918명(39.10%)		

었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 부족(17.04%), 운영·대기 시간 문제(16.38%), 시설 노후화(16.23%)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용 경험을 저해하는 요인이 단일 지점이 아니라 '인력-공간-프로그램-운영-시설' 전반에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표 20〉 참조).

4.5.3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키즈카페 예상 방문 빈도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키즈카페의 예상 방문 빈도는 '월 1~2회'가 35.95%로 가장 높았고, '주 1회 이상'은 18.70%로 나타났다. 월 1회 이상 이용 의향자 비율을 합산하면 54.65%로 절반을 넘으며, 평균값 2.596 역시 '월 1~2회' 수준에 가깝다. 이는 현재 키즈카페 이용 빈도는 낮았던 것과 달리, 서서울문화플라자 내에서는

중간 빈도의 반복 이용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준다(〈표 21〉 참조).

4.5.4 키즈카페에 가장 중요한 요소

키즈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안전 및 위생 관리'가 48.2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놀이시설(19.08%), 프로그램 구성(12.65%), 돌봄서비스(11.84%)가 뒤를 이었다. 식음료 및 보호자 공간은 6.30%로 상대적으로 낮아, 이용자는 편의성보다 안전성과 운영 품질을 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2〉 참조).

4.5.5 키즈카페 연령대

키즈카페의 주 이용 연령대는 3~5세 유아가 50.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6~9세 26.49%,

〈표 20〉 키즈카페 이용 시 불편한 점

키즈카페 이용 시 불편한 점	응답자 수(비율)	키즈카페 이용 시 불편한 점	응답자 수(비율)
운영 시간 및 대기 시간	542명(16.38%)	서비스 인력 부족 및 관리 미흡	724명(21.88%)
공간 부족	696명(21.03%)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족	564명(17.04%)
시설 노후화	537명(16.23%)	기타	246명(7.43%)

〈표 21〉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키즈카페 예상 방문 빈도

키즈카페 예상 방문 빈도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주 1회 이상	439명(18.70%)	2.596	1.129
월 1~2회	844명(35.95%)		
연 2~6회	292명(12.44%)		
그보다 드물게	773명(32.92%)		

〈표 22〉 키즈카페에 가장 중요한 요소

키즈카페에 가장 중요한 요소	응답자 수(비율)	키즈카페에 가장 중요한 요소	응답자 수(비율)
놀이시설	448명(19.08%)	돌봄서비스	278명(11.84%)
안전 및 위생 관리	1,133명(48.25%)	식음료 서비스 및 보호자 휴식 공간	148명(6.30%)
프로그램	297명(12.65%)	기타	44명(1.87%)

〈표 23〉 키즈카페 연령대

키즈카페 연령대	응답자 수(비율)	키즈카페 연령대	응답자 수(비율)
0~2세 (영아)	208명(8.86%)	6~9세 (초등 저학년)	622명(26.49%)
3~5세 (유아)	1,190명(50.68%)	9세 이상 (초등 고학년)	328명(13.97%)

9세 이상 13.97%, 0~2세 8.8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키즈카페가 기본적으로 유아 중심 수요에 의해 지탱되며, 초등 저학년까지를 포함하는 다층 이용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표 23〉 참조).

4.5.6 키즈카페에서 제공되길 희망하는 주요 프로그램

키즈카페에서 제공되길 희망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아동 놀이·체험 활동이 27.45%로 가장 높았고 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23.01%, 미술·공예 체험 20.72%가 뒤를 이었다. 반면 그림책 읽기(15.56%)와 육아지원 서비스(12.32%)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용자가 키즈카페를 ‘학습 공간’보다는 ‘체험 중심의 놀이·활동 공간’으로 우선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4〉 참조).

〈표 24〉 키즈카페에서 제공되길 희망하는 주요 프로그램

희망하는 키즈카페 프로그램	응답자 수(비율)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	673명(15.56%)
미술·공예 체험	896명(20.72%)
부모·자녀 놀이 교실, 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995명(23.01%)
아동 놀이·체험 프로그램(창의 놀이 활동: 블록·레고·퍼즐 등)	1,187명(27.45%)
육아지원 서비스(돌봄, 일시보육 등)	533명(12.32%)
기타	41명(0.95%)

4.5.7 키즈카페 내 부모를 위한 편의시설 키즈카페 내 부모 편의시설 수요는 ‘휴식’과

‘육아 인프라’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부모 휴게 공간(카페존) 선호가 48.35%로 가장 높았고, 수유실·기저귀 교환대 31.66%, 보호자용 독서 공간 18.73%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키즈카페 이용 경험이 아동의 놀이뿐 아니라 보호자의 체류 편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표 25〉 참조).

4.6 복합시설 운영 방향, 프로그램 및 공간 구성 전략

4.6.1 복합시설 이용 빈도

복합시설 이용 빈도 분석 결과, 응답자의 66.91%가 월 1회 이상 이용 의향을 보여 서서 울문화플라자가 생활권 기반의 정기 이용 시설로 작동할 가능성이 확인된다. 세부적으로는 월 1~2회가 38.46%로 가장 높았고, 주 1회 이상도 28.45%로 나타났으며, 평균 2.131(표준편차 0.923)로 이용 의향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표 26〉 참조).

4.6.2 복합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복합시설 이용 시 불편 요인은 ‘정보·운영의 통합 부족’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가장 큰 불편은 시설 정보 및 개별시설 홍보 부족(28.48%)이었고, 전문성 및 다양성 부족(26.57%), 통합 이용의 어려움(23.42%)이 뒤를 이었다. 휴식 및 편의 공간 부족도 19.26%로 적지 않아, 복합시설의 장점이 ‘연계된 경험’으로 체감되지

〈표 25〉 키즈카페 내 부모를 위한 편의시설

키즈카페 내 부모를 위한 편의시설	응답자 수(비율)	키즈카페 내 부모를 위한 편의시설	응답자 수(비율)
부모 휴게 공간(카페존)	1,616명(48.35%)	보호자용 독서 공간	626명(18.73%)
수유실·기저귀 교환대	1,058명(31.66%)	기타	42명(1.26%)

〈표 26〉 복합시설 이용 빈도

복합시설 이용 빈도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주 1회 이상	668명(28.45%)	2.131	0.923
월 1~2회	903명(38.46%)		
연 2~6회	578명(24.62%)		
그보다 드물게	199명(8.48%)		

못할 경우 이용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표 27〉 참조).

〈표 27〉 복합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복합시설 이용 시 불편한 점	응답자 수(비율)
각 시설별 전문성 부족(다양한 프로그램 및 공간 부족)	876명(26.57%)
시설별 분리 운영되어 통합 이용 불가	772명(23.42%)
시설의 정체성 모호 및 개별시설에 대한 홍보 부족	939명(28.48%)
휴식 및 편의공간 부족	635명(19.26%)
기타	75명(2.27%)

4.6.3 복합시설 내 각 시설 연계 공간 및 프로그램 예상 이용 빈도

복합시설 내 각 시설의 연계 공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예상 이용 빈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월 1-2회’ 이용 의향이 43.70%로 가장 높

았고, ‘주 1회 이상’도 38.12%에 달해 정기적 참여 수요가 뚜렷하다. 평균값 1.857 역시 연계 공간·프로그램이 ‘가끔’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표 28〉 참조).

4.6.4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정체성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정체성 인식은 ‘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복합공간’에 대한 선호로 수렴된다. 가장 많은 응답이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복합공간’(29.73)이었고, ‘가족친화형 복합공간’(23.98%)과 ‘생활체육 중심 복합시설’(23.72%)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어, 정체성의 중심축이 문화향유·가족체험·건강체육의 3요소로 구성됨을 보여준다. 반면 첨단기술 기반 창의체험 공간은 4.73%로 낮아, 기술

〈표 28〉 복합시설 내 각 시설 연계 공간 및 프로그램 예상 이용 빈도

공간 및 프로그램 예상 이용 빈도	응답자 수(비율)	평균	STD.
주 1회 이상	895명(38.12%)	1.857	0.844
월 1~2회	1,026명(43.70%)		
연 2~6회	295명(12.56%)		
그보다 드물게	132명(5.62%)		

중심 정체성은 핵심 기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표 29〉 참조).

〈표 29〉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정체성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정체성	응답자 수(비율)
생활밀착형 문화 향유 복합공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독서·공연·전시 중심 공간)	698명(29.73%)
건강과 여가 중심의 생활체육 복합시설 (수영·체육·건강 상담 등 생활운동 중심 공간)	557명(23.72%)
가족 친화형 보육·놀이 중심 복합공간 (부모·자녀가 함께 즐기는 체험 및 휴식 공간)	563명(23.98%)
융합형 복합문화서비스 공간 (문화·체육·놀이돌봄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플랫폼)	410명(17.46%)
첨단기술 기반 창의체험 복합시설 (VR·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스마트 체험 공간)	111명(4.73%)
기타	9명(0.38%)

4.6.5 서서울문화플라자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서서울문화플라자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생활체육 중심의 요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기대 수준이 평균 4.297점으로 최고였고, 문화 향유 프로그램(4.212점)과 융복합형 복합서비스 프로그램(4.147점)도 모두 4점대를 유지해 높은 수요가 확인된다. 반면 스마트 기반 창의 콘텐츠 프로그램은 3.98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기술 중심 콘텐츠는 핵심 기대라기보다 보완적 체험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표 30〉 참조).

4.6.6 서서울문화플라자에서 제공되길 희망하는 융합 서비스 유형

서서울문화플라자에서 희망하는 융합 서비스 유형은 '건강·정서'와 '가족 단위 통합 이용'에 가장 강하게 수렴되었다. 가장 높은 선호는 건강+정서발달형(수영, 명상 등과 독서 연계)으로 30.07%였고, 아동 대상 독서+놀이형(키즈카페-도서관 연계) 20.40%, 가족 단위 독서+체육형 19.89%가 뒤를 이어, 복합시설의 가

〈표 30〉 서서울문화플라자에 기대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항목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평균	STD.
문화 향유 프로그램(독서 토론, 저자 강연, 공연·전시 등)	40명 1.70%	59명 2.51%	340명 14.48%	833명 35.48%	1,076명 45.83%	4.212	0.901
생활체육 프로그램(스포츠 체험, 건강 관리, 수영·운동 강습 등)	25명 1.06%	60명 2.56%	253명 10.78%	865명 36.84%	1,145명 48.76%	4.297	0.84
가족 단위 체험·보육 프로그램(부모·자녀 놀이, 가족 독서·공예·운동 융합 프로그램 등)	64명 2.73%	88명 3.75%	415명 17.67%	766명 32.62%	1,015명 43.23%	4.099	0.997
융합형 복합서비스 프로그램(도서관·체육·놀이돌봄이 연계된 통합 체험형 클래스 등)	48명 2.04%	66명 2.81%	360명 15.33%	894명 38.07%	980명 41.74%	4.147	0.92
스마트 기반 창의 콘텐츠 프로그램(VR 체험, 디지털 창작, 메타버스 독서 등)	70명 2.98%	109명 4.64%	451명 19.21%	881명 37.52%	837명 35.65%	3.982	1.001

치를 “치유·건강”과 “가족 동반 경험”에서 찾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기술 연계형(스포츠 VR 등)은 17.12%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고, 계절별·캠프형 통합 프로그램은 12.14%로 상대적으로 낮아, 일회성 이벤트보다 일상적·정기적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함을 보여준다(〈표 31〉 참조).

〈표 31〉 서서울문화플라자에서 제공되길 희망하는 융합 서비스 유형

희망하는 융합 서비스 유형	응답자 수(비율)
가족 단위 독서+체육 연계 프로그램 (예: 부모-자녀 건강 독서교실)	790명(19.89%)
아동 대상 독서+놀이 통합 프로그램 (예: 키즈카페-도서관 연계 책놀이)	810명(20.40%)
건강+정서발달 통합 프로그램 (예: 수영+명상+독서 융합)	1,194명(30.07%)
디지털 창작+체육 활동 통합 콘텐츠 (예: 스포츠 VR, 메타버스 연계 등)	680명(17.12%)
계절별·주말 특별 융합 프로그램 (예: 가족 운동회+독서 캠프 등)	482명(12.14%)
기타	15명(0.38%)

4.6.7 복합체험 프로그램의 적합 유형

복합체험 프로그램의 적합 유형에 대한 선호는 ‘가족 동반 주말형’과 ‘아동·청소년 맞춤형 융합형’이 핵심 축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된 유형은 주말 가족참여형 프로그램(Family Day)으로 25.33%(982명)였고, 초등 아동 대상 독서+스포츠 체험형이 22.16%(859명), 청소년 대상 스포츠·심리·독서 통합형이 21.98%(852명)로 뒤를 이어, 복합시설의 체험 프로그램이 세대별로 “함께 참여하면서도 수준·욕구가 다른”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반면 스마트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은 13.93%(540명)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유아 대상 그림책·놀이형

도 15.91%(617명)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표 32〉 참조).

〈표 32〉 복합체험 프로그램의 적합 유형

복합체험 프로그램의 적합 유형	응답자 수(비율)
유아대상 그림책·놀이 융합 프로그램 (예: 그림책 주인공 따라하는 체육 활동, 동화 기반 미술·블록놀이 등)	617명(15.91%)
초등 아동대상 독서+스포츠 체험형 워크숍 (예: 스포츠 주제 독서 후 해당 종목체험, 독서 후 수영장 연계체험 등)	859명(22.16%)
청소년 대상 스포츠·심리·독서 통합 프로그램(예: 운동과 멘탈 케어 관련 도서 읽기+운동 체험+심리 강연 등)	852명(21.98%)
주말 가족 참여형 융합 프로그램(Family Day)(예: 가족 독서 + 공예 + 체육 활동 + 문화공연 등)	982명(25.33%)
스마트 기반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 (예: 운동 데이터 기반 건강 독서 추천, VR 스포츠 연계 독서 체험 등)	540명(13.93%)
기타	27명(0.70%)

4.6.8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필요한 공간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필요한 공간에 대한 응답은 ‘개방형 복합문화공간’과 ‘가족·커뮤니티 기반 융합공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가장 높은 수요는 문화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개방형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 18.87%(978명)였고, 다목적 커뮤니티홀(체험·강연·토론) 16.26%(843명), 가족형 독서·놀이·운동 융합 공간 15.93%(826명), 건강·교육 융합형 프로그램 전용 공간 14.51%(752명)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생활밀착형 쉼터, 전 연령 맞춤형 공간, 집중학습실 등 특화·보조 공간도 7~11%대의 수요가 확인되어, 핵심 거점 공간과 더불어 체류·학습·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공간 포트폴리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표 33〉 참조).

〈표 33〉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필요한 공간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필요 공간	응답자 수(비율)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용 가능한 가족형 독서·놀이·운동 융합 공간	826명(15.93%)
체험·강연·토론 등이 가능한 다목적 커뮤니티홀	843명(16.26%)
건강·교육·양육 주제를 아우르는 융합형 프로그램 전용 공간	752명(14.51%)
문화공연 및 전시가 가능한 개방형 문화예술 복합 공간	978명(18.87%)
시설 성격에 따라 분리 구획되어 집중활동이 가능한 공간	628명(12.11%)
전 세대가 함께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힐링·쉼터 공간	747명(14.41%)
연령별 맞춤 공간(학생, 장년층 등)	397명(7.66%)
기타	13명(0.25%)

4.6.9 서서울문화플라자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편의시설

서서울문화플라자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편의시설은 ‘먹거리·생활편의’ 중심의 체류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카페·베이커리(27.95%)가 가장 높았고, 푸드코트·음식점(23.58%), 생활필수품점·편의점(14.79%) 순으로 응답이 집중되어, 복합시설 이용이 단시간 방문보다 ‘머무르는 이용’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아동휴게공간(8.90%)과 반려동물 관련 시설(4.37%) 등 특정 이용자층의 편의를 반영한 요구도 확인되어, 편의시설의 구성은 보편적 소비공간과 가족·특수 계층 배려시설을 함

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표 34〉 참조).

4.6.10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야외공간 활용 방안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야외공간 활용에 대한 선호는 전 항목 평균이 4.1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야외공간이 ‘부대 공간’이 아니라 시설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주민 커뮤니티·자연친화 공간(평균 4.301)과 독서·휴식을 위한 야외정원형 공간(평균 4.293), 정원형 문화광장·야외예술시장(평균 4.241)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져, 이용자가 야외공간을 휴식·독서·커뮤니티 활동과 문화예술 참여가 결합되는 플랫폼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5〉 참조).

4.7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적인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는 서서울문화플라자가 ‘생활권에서 자주 찾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일상성·세대통합·통합운영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우선 시민 수요는 생활밀착형 공간에 강하게 집중된다. 열린 열람 공간, 야외 독서정원, 북카페, 가족 체험 공간 등은 단순한 부대 요소가 아니라 방문 동기를 형성하고 체류

〈표 34〉 서서울문화플라자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편의시설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편의시설	응답자 수(비율)	서서울문화플라자 내 편의시설	응답자 수(비율)
카페(북카페) 및 베이커리	1,336명(27.95%)	기념품(굿즈) 판매점	402명(8.41%)
푸드코트 및 일반음식점(레스토랑 등)	1,127명(23.58%)	아동용품, 유모차·휠체어 대여소	445명(9.31%)
스포츠용품 판매 및 대여점	527명(11.03%)	반려동물 관련 시설(용품 판매, 입시 케어존 등)	209명(4.37%)
소형 편의점 및 생활잡화점	707명(14.79%)	기타	27명(0.56%)

〈표 35〉 서서울문화플라자 야외공간 활용 방안

분류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선호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선호한다	매우 선호한다	평균	STD.
독서 및 휴식을 위한 야외 독서정원, 열린 열람 공간, 문화행사 연계 공간	34명 1.45%	60명 2.56%	281명 11.97%	783명 33.35%	1,190명 50.68%	4.293	0.88
유아·청소년을 위한 체육·놀이 활동장 및 안전한 야외 체험 공간	62명 2.64%	81명 3.45%	380명 16.18%	774명 32.96%	1,051명 44.76%	4.138	0.983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쉼터 및 자연친화적 녹지 공간	29명 1.24%	64명 2.73%	273명 11.63%	788명 33.56%	1,194명 50.85%	4.301	0.869
공연, 플라마켓, 야외예식장, 계절행사 등 정기적 야외 문화행사 공간	46명 1.96%	72명 3.07%	326명 13.88%	729명 31.05%	1,175명 50.04%	4.241	0.938

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실내와 실외를 분리하기보다 독서·문화·놀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실내·외 복합 구조로 공간을 통합 설계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야외공간은 단순 조경이 아니라 계절형 체험 프로그램과 열린 커뮤니티 정원 운영을 통해 이용 경험을 확장하는 장치로 기획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연령별 요구가 뚜렷하게 분화되면서도 가족 단위 통합 이용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높게 나타난다. 유아는 책·놀이·미술이 결합된 체험형 콘텐츠, 초등은 독서와 생활체육을 연계한 활동형 콘텐츠, 청소년은 스포츠와 심리·멘탈헬스를 결합한 성장 지원형 콘텐츠, 가족은 주말 중심의 통합형 프로그램 수요가 강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이벤트의 나열이 아니라 전 연령 라이프사이클형 프로그램 체계로 정제화되어야 하며, 키즈존-청소년존-가족체험존처럼 공간과 콘텐츠를 일정 수준 구분하되 동선과 운영은 통합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복합시설로서의 운영 전략에서는 개별시설

의 단순 병치보다 문화·체육·보육 기능이 융합된 경험을 제공할 때 만족과 재방문이 강화된다는 점이 핵심 시사점으로 도출된다. 도서관·체육시설·키즈카페 간 공간 연계성과 프로그램 융합 기획이 운영의 중심 원리가 되어야 하며, 예컨대 ‘도서관+수영장’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이나 ‘키즈카페+도서관’ 협력 프로그램처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차 프로그램을 정제화하는 방식이 복합시설의 가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한다.

스마트 기술에 대한 수요는 핵심 기능이라기보다 선택적·보완적 요소로 나타났으나, 미래 지향적 체험 욕구가 일정 수준 존재하는 만큼 혁신 기반으로의 활용 가능성은 확인된다. 이에 따라 VR·AI·헬스데이터 활용은 전면적 정체성으로 내세우기보다 스마트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AI 북큐레이션이나 웨어러블 연동 건강·독서 추천과 같은 시범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접근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서서울문화플라자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역할

이 요구된다. 소통과 휴식 중심의 열린 공간과 지역 커뮤니티존을 조성하고, 지역 행사·플리마켓·주민 참여 전시 등 주민 자율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복합시설은 생활권의 문화적 일상과 관계망을 함께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5. 논의

본 연구는 서서울문화플라자를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상정하고, 설문분석을 통해 (1) 사업 수용성, (2) 정체성 인식의 분포, (3) 복합시설 및 구성시설의 정기 이용 잠재력, (4) 공간·프로그램·편의 및 야외공간의 우선순위, (5) 통합 운영 관점의 장애요인과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복합시설을 “여러 기능의 병치”가 아니라, 이용자의 경험 흐름(정보 접근-이동-참여-휴식-재방문)을 설계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이해하는 선행연구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곽승진 외, 2017; Bitner, 1992).

연구질문 1과 관련하여, 서서울문화플라자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여 사업 추진의 사회적 수용성이 충분함을 뒷받침한다. 계획행동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시설 필요성에 대한 강한 긍정 태도는 방문 의향을 포함한 행동의도 형성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Ajzen, 1991). 본 조사에서 확인된 높은 필요성 평가는 단순 찬반을 넘어, 주민이 해당 시설을 생활권의 필수 인프라로 기대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이 지역의 일상적 문화향유와 평생학

습, 사회적 포용의 기반 시설로 기능해야 한다는 국제적 규범의 방향성과도 정합적이다(IFLA & UNESCO, 2022; UNESCO & IFLA, 2022). 다만 수용성이 높을수록 기대의 수준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기대-경험’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 초기 반응과 달리 만족과 재방문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운영 설계는 “기대 관리”를 전제한 품질 표준(공간·프로그램·운영 편의)을 동반해야 한다는 함의를 갖는다(Bitner, 1992).

연구질문 2의 관점에서,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정체성 인식은 단일한 브랜드 프레임으로 수렴하기보다 생활문화, 건강체육, 가족체험의 3축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합시설의 ‘정체성’이 홍보 문구가 아니라, 이용자가 공간을 어떤 의미체계로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려는지에 대한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도지강, 이선정, 2025; Lefebvre, 1991). 특히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지지가 최빈값을 이루면서 가족친화와 생활체육 중심 정체성이 유사 수준으로 뒤따랐다는 점은, 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체육과 가족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복합시설의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에서 ‘제3의 장소’로 작동하며 체류와 만남을 매개할 때 공동체 기능이 강화된다는 논의와도 연결된다(Aabø & Audunson, 2012; Oldenburg, 1999). 반면 첨단기술 기반 창의체험 정체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기술 요소가 핵심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보조적 체험 또는 접근성 강화 장치로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미래형 도서관 담론에서 스마트·라키비움·메

이커 기능을 논의하되, 이를 이용자 경험과 운영 체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정렬해야 한다는 지적이 축적되어 왔다(곽승진, 이정미, 2018; 김보영, 곽승진, 2017).

연구질문 3과 관련하여, 복합시설 및 구성시설(시립도서관, 생활체육시설, 키즈카페)의 예상 방문 빈도는 전반적으로 '월 1회 이상'의 정기 이용 잠재력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가장 자주 방문할 시설"의 중심축으로 나타난 점은, 복합시설 운영의 앵커가 '지식·문화(도서관)-건강·여가(체육)' 결합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도서관 복합화 연구가 강조해 온 바와 같이, 복합시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능이 반복 방문을 견인하고, 보조 기능이 체류 만족과 연계 경험을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일치한다(고재민, 임호균, 2012; 김소연, 임호균, 2025). 다만 의향은 실제 행동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운영 시간, 혼잡, 예약 편의, 안전·위생 등 서비스 환경의 질이다(Bitner, 1992). 따라서 높은 방문의향을 '정기 이용'으로 고착시키기 위해서는 주간 단위의 고정 프로그램과 월간 단위의 테마형 콘텐츠를 병행하는 운영 리듬을 구축하고, 예약·회차 운영 등으로 대기와 혼잡을 관리하는 시스템 설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본 결과의 핵심 함의이다.

연구질문 4의 관점에서, 주민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공간·편익시설·야외공간은 "체류형 복합시설"의 운영 논리를 강하게 지지한다. 열린 열람과 커뮤니티홀, 가족형 융합공간, 건강·교육 융합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고, 카페·식음 등 편익시설 요구가 두드러졌

며, 야외공간 활용 선호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확인되었다. 이는 복합시설의 가치가 단순히 기능을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머무름과 경험의 품질을 통해 확장된다는 경험경제 관점과 연결된다(Pine & Gilmore, 1999). 국내 도서관 공간 연구에서도 좌석·편익시설·프로그램 공간의 조합이 이용 만족과 체류를 좌우하며, 공간 구성은 운영 전략과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왔다(고재민 외, 2015; 황미영, 2018). 특히 야외공간에 대한 높은 선호는, 야외가 '부속'이 아니라 독서·휴식·커뮤니티·문화행사가 교차하는 운영 무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계절형 프로그램과 주민참여형 콘텐츠(플리마켓, 야외전시 등)를 통해 복합시설의 방문 동기를 주기적으로 재생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질문 5와 관련하여, 복합시설 이용의 핵심 불편이 정보·홍보 부족, 전문성·다양성 부족, 통합 이용의 어려움으로 집중된 점은 "통합 운영의 결핍"이 이용 경험을 저해하는 결정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는 복합시설이 '한 건물에 여러 시설'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기능 간 전이를 쉽게 경험하도록 안내·예약·동선·프로그램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신영지, 노영희, 2020). 도서관 정보시스템과 서비스 혁신 논의 역시 이용자 접점에서 통합 안내와 접근성을 강화하는 체계가 운영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곽승진, 신재민, 2014). 본 결과는 따라서 통합형 정보 제공 플랫폼(웹·앱·키오스크), 통합 예약·공지·멤버십 체계, 시설 간 동선 단순화, 교차 프로그램의 정례화가 '선택 사항'

이 아니라 복합시설의 기본 인프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또한 편의·휴식 공간 부족이 의미 있는 불편으로 확인된 점은, 통합 경험을 완성하는 조건이 “머무름의 질”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한다. 키즈카페의 경우 안전·위생이 압도적 핵심 가치로 나타나고 인력·관리 문제가 주요 불편으로 제시된 바, 가족 단위 연계 이용을 확대하려면 운영 표준(인력 배치, 안전 매뉴얼, 회전을 관리)을 통합 운영 체계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설문분석은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정책 방향이 (1) 생활문화·건강체육·가족 체험의 3축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설정하고, (2)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앵커로 하여 정기 방문 리듬을 설계하며, (3) 야외공간·편익시설·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체류 경험을 강화하고 (4) 통합 안내·예약·동선·프로그램을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운영 모델로 수렴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복합문화공간의 성과가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운영을 통해 완성된다는 국내외 논의와 동일 선상에 있으며(곽승진 외, 2017; Aabø & Audunson, 2012), 특히 “정체성 인식-방문의향-통합 운영”을 연결해 계획 단계에서 실증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서울문화플라자를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제하고, 2,348부의 설문 응답을 기반으로 시민의 수용성, 정체성 인식, 방문의향, 공간·프로그램 수요, 통합 운영의 장애요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서울문화플라자는 “필요성에 대한 높은 사회적 수용성”과 “정기 이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문 잠재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복합시설의 핵심 앵커 기능은 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에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정체성은 생활문화(문화향유)·건강체육·가족체험의 3축이 결합된 형태로 수렴하였다. 반면 기술 기반 창의체험 정체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스마트 요소는 전면적 정체성보다는 선택적·보완적 서비스로 배치될 때 수용성이 높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또한 프로그램·공간 수요는 “단발성 이벤트”보다 “주기적 참여가 가능한 정례 운영체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났고, 야외공간과 편익시설에 대한 높은 선호는 서서울문화플라자가 ‘체류형’ 복합시설로 설계·운영될 때 방문의향이 실제 이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짐을 보여준다. 동시에 복합시설 이용의 핵심 불편이 정보·홍보 부족, 전문성·다양성 부족, 통합 이용의 어려움으로 집중되었다는 점은, 시설의 물리적 결합만으로는 복합시설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으며 통합 안내·예약·동선·프로그램 연계가 “운영 인프라”로 구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결론적으로, 서서울문화플라자는 ‘생활권에서 자주 찾는 문화·건강·가족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성패는 시설의 규모나 구성 자체보다 통합 운영 역량과 이용 경험의 일관된 설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운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운영의 중심축은 “도서관+생활체육”을 앵커로 설정하되, 가족

체험 기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복합시설의 정체성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간 배치에서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분리된 기능이 아니라 상호 유입을 촉진하는 관계로 설계하고, 운영에서도 독서·정보서비스와 건강·운동 프로그램이 결합되는 융합 콘텐츠를 정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방문의향이 높은 구조를 실제 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간 단위의 고정 프로그램(정기 강습, 정기 강좌, 가족 루틴형 프로그램)과 월간 단위의 테마형 콘텐츠(전시·강연·프로젝트형 커뮤니티 활동)를 병행하는 운영 리듬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건강+정서발달'형 융합 서비스 선호가 높게 확인된 만큼, 운동·수영·명상과 독서·정보 큐레이션을 연결한 치유형 프로그램은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가치가 크다.

셋째, 통합 운영의 결핍이 핵심 불편으로 확인된 점을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 개장 초기부터 통합 안내 플랫폼(웹·앱·키오스크)을 구축하여 시설별 프로그램·이용 규칙·혼잡 정보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통합 예약·회차 운영·타임슬롯 기반의 수요관리 체계를 통해 대기와 혼잡을 구조적으로 줄여야 한다. 동시에 시설 간 이동 동선을 단순화하고, 도서관-체육-키즈 기능이 교차하는 프로그램을 정례화함으로써 "통합 이용"이 실제 경험으로 성립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체류형 복합시설의 핵심 조건은 '머무름의 질'이므로, 카페·식음·휴게 등 편익시설과 야외공간을 부대 요소가 아니라 운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야외공간은 독서 정원·열람데크 등 정적 휴식 기능을 기반으로 하되, 정원형 문화광장·야외예술시장·플리마

켓과 같은 주민참여형 콘텐츠를 정례화하여 계절별 방문 동기를 재생산하는 운영 무대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키즈카페는 자체 이용 빈도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복합시설의 가족 체류를 매개하는 핵심 장치로 운영해야 한다. 안전·위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확인된 만큼, 전문 인력 배치와 표준화된 안전·위생 관리체계를 선행 조건으로 확립하고, 연령대별 존 구성과 체험형 콘텐츠의 순환 편성을 통해 재방문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부모 휴게(카페존)와 기본 육아 인프라(수유·기저귀 교환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가족 단위 체류 경험을 완성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여섯째, 포용성과 접근성은 이용 의향을 실제 이용으로 전환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수 있으므로, 유모차·휠체어 동선, 고령자 배려 좌석, 가족 동반 동선의 안전성, 주차·대중교통·도보 접근성 개선을 운영 전략과 동일한 무게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강서구 중심 수요가 확인된 동시에 인접 자치구 유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권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둔 연계 홍보와 프로그램 협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술은 핵심 정체성으로 전면화하기보다 '선택형·보완형 혁신'으로 단계화하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AI 북큐레이션, 디지털 리터러시, VR 기반 체험 등은 특정 집단(청소년, 디지털 학습 수요층)의 수요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성과와 수용성을 검증한 뒤 확산하는 방식이 운영 리스크를 줄이면서 혁신 효과를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재중 (2019). 공공도서관의 기능변화에 따른 건축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7(4), 167-179.
<https://doi.org/10.22313/reik.2019.17.4.167>
- 고재민, 임호균 (2012).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경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구. 인포디자인이슈)*, 11(5), 43-56.
- 고재민, 조현양, 고흥권 (2015). 도서관 소요공간에 따른 면적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349-379. <https://doi.org/10.16981/kliss.46.3.201509.349>
- 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 복합문화기관으로서 도서관의 공간 구성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7-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007>
- 곽승진, 신재민 (2014).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발전 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5(4), 499-518.
<https://doi.org/10.16881/jss.2014.10.25.4.499>
- 곽승진, 이정미 (2018). 복합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전략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339-359.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3.339>
- 김보영, 곽승진 (2017). 대학도서관의 메이커 스페이스 도입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259-276. <https://doi.org/10.16981/kliss.48.3.201709.259>
- 김소연, 임호균 (2025). 공공도서관 복합화 사례 분석 연구: 국내외 우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5(5), 338-350. <https://doi.org/10.5392/JKCA.2025.25.05.338>
- 노영희, 김윤정 (2019).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23-50. <https://doi.org/10.4275/KSLIS.2019.53.4.023>
- 노지윤, 노영희 (2019). 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이용요인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511-537. <https://doi.org/10.16981/kliss.50.4.201912.511>
- 노지강, 이선정 (2025).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르페브르의 공간 생산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3), 225-238.
<https://doi.org/10.35216/kisd.2025.20.3.225>
- 박옥남, 박희진 (2017). 국회도서관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라키비움 운영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201-226.
<https://doi.org/10.4275/KSLIS.2017.51.1.201>
- 손다희, 이남규 (2025). 공공도서관 열람공간 구성 변화와 이용자 시지각 특성에 관한 연구: 2015년 이후 한국·일본 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20(5), 345-356.
- 신영지, 노영희 (2020). 공공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의 프로그램 구성체계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89-114. <https://doi.org/10.4275/KSLIS.2020.54.1.089>
- 황미영 (2018). 공유문화의 장으로서의 도서관 공간의 설계요소 및 인프라 체계 연구. *한국살내디자*

인학회 논문집, 27(2), 86-97.

- Aabø, S. & Audunson, R. (2012). Use of library space and the library as pla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2), 138-149. <https://doi.org/10.1016/j.lisr.2011.06.002>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
- Bitner, M. J. (1992). Servicescapes: the impact of physical surroundings on customers and employees. *Journal of Marketing*, 56(2), 57-71. <https://doi.org/10.1177/002224299205600205>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 UNESCO (2022). The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2022. Available: <https://www.ifla.org/public-library-manifesto/>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Translated by D. Nicholson-Smith. Oxford, UK: Blackwell.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Neitzel, A. de A., Ferri, C., & Borba, A. N. de. (2018). The library as space of cultural mediation and aesthetic education. *Education Policy Analysis Archives*, 26, 20. <https://doi.org/10.14507/EPAA.26.2966>
- Oldenburg, R. (1999). *The Great Good Place* (3rd ed.). New York, NY: Marlowe & Company.
- Pine, B. J. & Gilmore, J. H. (1999). *The Experience Economy: Work is Theatre & Every Business a Stage*.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UNESCO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2022).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2022. Available: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5149>
- Williams, D. R. & Vaske, J. J. (2003). The measurement of place attachment: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a psychometric approach. *Forest Science*, 49(6), 830-840. <https://doi.org/10.1093/forestscience/49.6.83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wang, Mee-Young (2018). A study on design elements and infrastructure system of library space as a place of shared cultur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27(2), 86-97.
- Kang, Jae Joung (2019). A study on architectural spatial composition according to the functional

- changes of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7(4), 167-179. <https://doi.org/10.22313/reik.2019.17.4.167>
- Kim, Bo-Young & Kwak, Seung-Jin (2017).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akerspace at academ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259-276. <https://doi.org/10.16981/kliss.48.3.201709.259>
- Kim, So-Yeon & Lim, Ho-Kyun (2025). A case study on public library complexization: focusing on excellent domestic and foreign librari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5(5), 338-350. <https://doi.org/10.5392/JKCA.2025.25.05.338>
- Ko, Jae-min & Lim, Ho-Kyun (2012). A study on the complex trend of domestic public libraries. *Design Convergence Study*, 11(5), 43-56.
- Ko, Jae-min, Cho, Hyun-Yang, & Ko, Hung-Kwon (2015). A study on space program based on the library facility progra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349-379. <https://doi.org/10.16981/kliss.46.3.201509.349>
- Kwak, Seung-Jin & Lee, Jeong-Mee (2018). Study on Larchiveum introduction strategy of library as a multi cultural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3), 339-359.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3.339>
- Kwak, Seung-Jin & Shin, Jae-Min (2014). Study on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library information system. *Journal of Social Science*, 25(4), 499-518. <https://doi.org/10.16881/jss.2014.10.25.4.499>
- Kwak, Seung-Jin, Noh, Younghee, & Shin, Jae-Min (2017).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of library as a multicultural institu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7-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7.28.3.007>
- Noh, Younghee & Kim, Yoon-Jeong (2019). A study on the user recognition of library complex culture spa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4), 23-50. <https://doi.org/10.4275/KSLIS.2019.53.4.023>
- Park, Ok Nam & Park, Heejin (2017). A study for exhibition and education programs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focusing on Larchiveum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1), 201-226. <https://doi.org/10.4275/KSLIS.2017.51.1.201>
- Ro, Ji-Yoon & Noh, Younghee (2019). A study on the analysis of importance-performance on the use factor of complex cultural space in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511-537. <https://doi.org/10.16981/kliss.50.4.201912.511>
- Shin, Youngji & Noh, Younghee (2020). A study on the program structure and activation plan

- of the complex cultural space in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1), 89-114. <https://doi.org/10.4275/KSLIS.2020.54.1.089>
- Son, Dahee & Lee, Namgyu (2025). A study on the changes in reading area configuration and visual perception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y users: focusing on case studies of Korean and Japanese public libraries since 2015.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20(5), 345-356.
- Tu, Zhigang & Lee, Sunjung (2025).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ies as complex cultural spaces: focusing on Lefebvre's theory of spatial production.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20(3), 225-238. <https://doi.org/10.35216/kisd.2025.20.3.225>

